여래의 '첫' 설법



新 불교사자성어

⑥ 초전법륜(初轉法輪)

'최초로 법(진리, 가르침)의 수레바퀴(法輪)를 굴리다' 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후 처음으로 법을 설한 것' 을 뜻한다. 동의어로 '법륜상전(法輪常轉, 법륜이 항상 이어지다)' 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29세 때 예약된 왕위를 버리고 출가, 입산했다. 드디어 6년 만인 35세 때 니르바나(열반)의 경지, 곧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그것은 '고통으로 부터 해탈하는 방법' '연기의 법칙'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중도의 이치' 등으로 이것은 인류 정신사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대중에게 설해도 좋은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했다. '과연 내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경전에서는 '심오한 진리를 보통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것 같아서(……)' 라고 전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이나 진리, 사상은 거부하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21일간 깊은 고뇌와 사유 끝에 깨달은 진리를 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고귀하고 심오한 진리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안타깝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연기의 법칙, 니르바나의 세계, 중도의 이치 등 진리를 안다면 '불사(不死)의 경지'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불사(不死)의 경지' 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경지' '죽음을 초월한 경지' 를 말한다. 그것은 곧 해탈로서 '삶의 애착' '생사의 애착' 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진리를 설할까?' 고민했다. 그 결과 과거에 자신과 함께 고행과 수행했던 다섯 명의 비구(5비구)가 생각났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오늘날 4대 성지의 하나인 녹야원(초전법륜지)이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중도의 이치' 를 설했다. 그들은 극단적인 고행주의자였다. 그들에게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苦行)은 무의미하다는 것,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최초로 5비구에게 '중도(中道)의 이치' 를 설했는데, 이것을 '초전법륜(初轉法輪)' 이라고 한다. 법륜(法輪)은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붓다의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영원히 빛나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또 그것을 '법륜상전(法輪常轉)' 이라고도 하는데, 조석 예불할 때 축원문에도 나온다.

다음은 초전법륜경이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와라나시 근처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한 감각적 욕망,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고행(苦行)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 正道)를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 여래는 참으로 이 중도를 통하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중도를 통하여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얻었다."

지나친 고행은 깨달음을 이루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중도에 이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가 나온다. 초전법륜경에는 처음으로 중도와 사성제를 설한 것으로 나온다.

5비구는 콘단냐(교진여) · 아사지 · 마하나마 · 밧디야 · 바파로 붓다가 성도하기 전에 함께 수행하였고, 성도 후에는 최초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初轉法輪) 부처님께 귀의한 이들이다.

지금 인도의 국기가 바로 법륜이다.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인도의 국기는 주황색, 하얀색, 초록색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 줄무늬 가운데에는 24개의 축을 가진 파란색 법륜이 그려져 있다. 주황색은 용기와 헌신을, 하얀색은 진리와 평화를, 초록색은 믿음과 번영을 의미하며, 파란색 법륜은 마우리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소카의 사자상에 새겨져 있는 법륜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설봉이 열반당에 들어야 하는 까닭은?



격절록 강설

⑦ 제 2칙 설봉보청(雪峯普請 · 설봉의 대중울력)

[古則과 着語]

擧, 雪峯一日普請 自負一束藤 (勞而無功) 路逢一僧 峯便拋下 (力盡神疲) 僧方擬取 峯便踏倒 (下坡不走 快便難逢) 歸舉似長生 乃云 "我今日踏這僧快" (少賣弄) 生云 "和尚替這僧 入涅槃堂始得" (鬧市裏要一箇半箇) 峯便休去 (可惜放過)

설봉(雪峯, 설봉의존, 822~908)이 하루는 대중 울력을 하면서(普請) 스스로 등나무 한 속(束)을 짊어졌다. [애는 썼지만 그 보람은 없다.] 길에서 한 스님을 만나자, 설봉이 바로 던져버렸다. [힘을 다 썼으니 정신이 피로하겠군.]

그 스님이 막 주우려는데, 설봉이 바로 밟아 넘어뜨렸다. [언덕 아래로 빨리 달려가지 않으면 쾌속선을 만나기는 어렵다.]

돌아가 장생(長生, 장생교연, 생몰 연대 미상)에게 (앞의 일을) 전하고는, 말했다.

"내가 오늘 이 스님을 통쾌하게 밟아버렸다." [잘난 체 하지 말라!]

장생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이 스님을 대신해서 열반당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시장 바닥일지라도 (이런 괜찮은 놈이) 한 명 아니 반 명은 꼭 있다.]

(그러자) 설봉이 바로 쉬었다. [애석하다. 놓쳐버렸구나!]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長生大似東家人死 西家助哀. 也好與一踏" (闍黎也須急着眼始得).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장생은 마치 동쪽 집 사람이 죽었는데, 서쪽 집 사람이 슬퍼하는 것과 같다. (그러지 말고) 한 번 밟아버렸어야 했다." [스님(설두)이야말로 급히 착안(着眼)해야 한다.]

[評唱 1]

師云. 只這雪竇合喫多少 如今且放過一著. 雪峯為一千五百人善知識. 當時 日日普請 運水搬柴 豈似如今兄弟 端坐飽食 不知慚愧. 不見 雲門問僧 "甚麼處來" 僧云 "負柴來" 門云 "閑口" 且道 他雲門意 又作麼生. 諸人試體究看.

다만 이 설두가 방망이를 좀 몇 대 맞아야 맞는데, 지금 또 한 수를 놓쳐버렸다. 설봉은 1,500명의 선지식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날마다 대중울력으로 물 긷고 땔나무를 날랐으니, 어찌 요즘 형제들이 단정하게 앉아 배불리 먹고는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것과 같겠는가!

보지 못했는가! 운문(雲門, 운문문언, 864~949)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스님이 말했다.

"땔나무를 지고 왔습니다."

운문이 말했다.

"입 닥쳐!"

자, 말해보라! 저 운문의 뜻(雲門意)은 또 무엇인가? 모두들 시험 삼아 자세히 고찰하고 연구해 보라.

* 설봉(雪峯, 설봉의존, 822~908)
당나라 때의 승선사로,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 출신. 12세에 포전(蒲田) 옥윤사(玉潤寺)에서 출가하고, 여러 지역을 편력하다가 덕산선감(德山宣鑑, 780~865)에게 사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870년에 복건성 복주(福州) 상골봉(象骨峰)에 들어가 작은 절을 지으니 희종(僖宗)이 응천(應天) 설봉사(雪峰寺)라는 편액을 하사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⑦ 믿음 편 7

불교는 자력신앙인가 타력신앙인가?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기 마련이다. 이러한 유한한 실존 앞에 인간은 괴로움을 느끼고 한없이 작아진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영원한 삶을 꿈꾸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 꿈이 실현된 상태를 종교적 전통에 따라 구원, 혹은 깨달음 등으로 불린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다.

종교의 목적인 구원에 이르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자력신앙(自力信仰)과 타력신앙(他力信仰)이 그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 자력신앙이라면 절대적 힘을 가진 타자(他者), 즉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타력신앙이다. 기독교를 위시한 서양종교가 타력신앙이라면, 불교를 비롯한 동양종교는 자력신앙에 가깝다.

종교의 목적인 구원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깨달음은 어떤 절대적 존재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이다. 석가모니 붓다는 이를 직접 체험하고 '생로병사' 라는 인간의 실존적 괴로움에서 벗어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신앙의 모습은 그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의 탄생게와 마지막 유훈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붓다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자국을 걸으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친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높다.(天上天下 唯我獨尊)"

흔히 탄생게로 알려진 이 선언은 사실이라기보다는 불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이 말은 나 혼자 잘났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에서 '아(我)' 라는 말을 잘 알아야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나(我)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말은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매우 존엄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한 위대한 인간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인간을 위대하다고 했을까? 바로 종교의 목적인 구원을 인간 스스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대승불교에 이르러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佛性)을 갖추고 있다는 불성사상이나, '여래의 씨알(如來藏)' 이 있다는 여래장사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는 나고 죽는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력신앙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자력신앙의 모습은 붓다의 마지막 유훈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흔히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으로 알려진 붓다의 마지막 유훈은 깨달음이 어떤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정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증명해보인 인물이 바로 석가모니 붓다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의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며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스스로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이처럼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철학이나 종교가 있을까 싶다. 붓다의 탄생과 열반에서 확인한 것처럼 불교는 전형적인 자력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절대타자인 아미타불께 의지하여 정토에 낳고자 하는 타력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한 종교 안에서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 서로 양립할 수 있을까?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출강 및 통신 2019학년도 28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8년의 전통과 학적으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②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8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